

건강백서 ②

비장(脾臟) ②

자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복학(復學)'이라하여 어린애들이 아무리 먹어도 살은 찌지 않고 얼굴이 누렇게 수척해지며 배만 불러오르고 만성적으로 소화불량된 붉은 대변을 보는 질환이 많았었다.

이런 증상은 만성비장종대를 의미하며 회충등 기생충이 감염시키기도 하는데 일명 '자래가 들었다'고 하여 마치 자라목이 치켜들고 있는 모양처럼 왼쪽 옆구리가 볼록하게 튀어 올라있는 증상이다.

을 잠깐 찌른후 똥다든지, 손바닥이나 손마디 안쪽의 근육을 길라서 '비지'모양의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소위 '복학'을 따주어 광범하게 치료하는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임상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는 것 중의 하나이지만 위생적으로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에 유의하여 전문 한의사의 시술에 의해야 할 것이다. 이 질환은 조약(粗惡)한 음식을 포식하는데서 일어나는 소모성 질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절도있게 먹고 단것을 피하고 소

**복학, 영양가 높은 음식 먹이면 치료
만성 설사땀 지방질 섭취 삼가야**



눈은 핑하여 안구물출(眼球突出)이 된것처럼 되고 배가 아픴을 자주 호소한다.

극도로 허약해진 모습은 마치 자개발국의 굶주린 아이처럼 보여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때로는 몹시꺼음을 호소하며 똥을 먹는 일도있다. 이것은 감충(蠶蟲)이 경하는 것으로 회충(蛔蟲)등이 자극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와 같은 단것을 몹시 탐한다. 결핵(結核)이 경하여 있는 경우도 많아 정밀 진단이 요구되기도 한다. 대개의 경우 복부 중앙의 왼쪽을 침

화에 유의하면 예방과 더불어 치료도 되는 질환이다. 소장건비환(消積健脾丸)이나 안회조중탕(安蛔調中湯) 같은 약재를 적절하게 복용시키면서 위생적인 식생활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만성설사의 경우 대소장의 흡수기능의 저하나 염증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건(肝) 비(脾) 등의 소화효소분비부전(消化酵素分泌不全)으로 인해 지방분을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데서 일어난다. 지방질을 요령껏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운을 상 (한의학 박사)

◇기사삽처 '해의불교문화학' 다이어스트' 합니다.

아들 부처님 ②

주부신행담

“승호의 학교생활이란가 그 아이의 친구관계 같은 것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스님의 질문을 받고 나는 한참을 머뭇거리야 했다. 뭐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답했다. 나는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 했었다. 학기초나 말에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해 봐도 아이는 구김없이 잘 지라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눈에 띄게 결함이 없거나 친구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얻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나는 '승호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니 머릿속이 멍멍해지는 느낌 밖에 없었던 것이다.

“글쎄요, 학교 잘 다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집에서든 놀 앞편하고 쾌활한 아이인데 요새들어 못된 친구를 사귄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 할말이 없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어떻게 잘 다니고 있는지 친구들과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지금 보살님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요새들어 나쁜 친구를 사귄다는 생각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살님이 생각하는 나쁜 친구들의 부모에게 승호는 좋은 친구일까요?”

갈수록 앞이 캄캄했다. 나는 부끄럽고 절망스럽기까지 했다.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림 · 이준석

**“승호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보듬어 주세요
아들이 부처님이면 친구들은 보살들입니다”
스님의 충고가 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절망이었다. 아무런 대구를 못하고 있었는데 스님이 말을 이으셨다.

“보살님, 저도 학교를 다녔고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스님이 되어 있지만 아이들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나오는 학생들이 다 공부 잘하고 집에 서나 밖에서나 모범적인 학생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에 나오는 아이들도 다 고민이 있고 나쁜 길의 유혹도 받습니다. 다만 우리 법우들은 그런 유혹이나 고민을 극복해 내는 지혜를 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말씀을 이어가는 스님의 얼굴에서 나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그러니까 승호도 절에 보내야 겠군요.”

“절에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이의 몸을 잘 보내 놓고 뭐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몸을 학교에 보내며 잘 지라고 있는 것으로 여겨 온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까요. 보살님이 승호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름을...”

“할 아까 나쁜 친구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도 다 우리절에 나오게 해야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친구들을 더이상 못 사귀도록 단단히 일러줄 참인데 그 녀석들과 함께 절에 다니게 하더니.

머나인가를 그날 스님을 통해 배웠다. 내 아이를 부처님으로 여기면 친구들을 보살님으로 여기라는 스님의 충고가 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날 법담을 나오기전 부처님께 발원했다. 승호를 잘 보내셨으며 그 친구들도 부처님께 귀의시키겠다는 것과 앞으로는 아이의 어미 노릇을 좀더 잘 하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원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는 의미에서 오랫만에 108배를 했다. 다리가 아파왔지만 그간의 내 잘못을 뒤늦게 하는 것이 이 정도의 아픔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

집에 오는 길에도 나는 승호를 어떻게 부처님께 귀의시킬 것인가를 두고 생각했다. 갑자기 절이란대로 이르면 아이가 잘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간 혼자만 절에 다닌 것이 후회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나의 그런 고민은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

이법성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 Mucus from the nose, through the mouth it ejects at one time bile and at other times it ejects phlegm, and from all the body come sweat and dirt.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을 흘리고 가래를 뱉는다. 그리고 온몸에서는 땀과 때를 배출한다.

◆ Then its hollow head is filled with the brain. A fool led by ignorance thinks it a fine thing.

또 그 머리의 빈 곳은 뇌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명(無明)에 이끌려서 이런 육신을 깨끗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 And when it lies dead, swollen and livid, discarded in the cemetery, relatives do not care for it.

또 죽어서 몸이 쓰러졌을 때에는 부어서 검푸르게 되고,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피타 ⑤4

◆ Dogs eat it and jackals, wolves and worms; crows and vultures eat it, and what other living creatures there are.

개나 재갈·여우·늑대·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수리 등이 쪼아 먹는다. 또 시체 주변에서 살고 있는 다른 것들 역시 잡아 먹는다.

◆ The Bhikku possessed of understanding in this world, having listened to Buddha's words, he certainly knows it thoroughly, for he sees it as it really is.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자는, 깨달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 *manā (n) (생물체 내의) 힘, 콧물 (epitām) 힘
- *ūre (n) 힘
- *māsa (n) (살인) 뱀, 수렁기, 물방울, 불안
- *tolāsa (n) 뱀, 흙, 흙이 된, 공허한, 무의미한
- *kūla (n) 어리석은 사람 (unwisdom), 권력
- *ānāraha (n) 무지, 무지 (ignorance think = 無明)
- *sāra (n) 안락의 'body'를 가리킨다.
- *vāsa (n) (몸집이) 굵추, 흉내, 남방의
- *amāsa (n) (고와에 소속되지 않은) 묘지
- *kūla (n) (여우와 독수리의 중간형) 재갈
- *vāsa (n) 'word'를 가리킨다.
- *vāsa (n) (까마귀와 독수리의 힘)

오종욱 기자

방바닥을 뜯지않고 보일러가 필요없는 전자동 난방!



**당일시공!
당일난방!**

동파, 화재, 소음으로부터 완전해방! **시공비는 가스, 기름보일러의 60%**

따끈이 안전 전자동 온돌판넬

W·B 전자동 온돌판넬의 규격 및 사양

| 항목 종류 | W·B 920 | W·B 920C | W·B 460L | W·B 460S |
|-------|-------------|---------------|-------------|------------|
| 외형치수 | 1700×850×15 | 1700×850×15 | 1700×400×15 | 850×850×15 |
| 난방출력 | 220(W) | 220(W) | 70(W) | 70(W) |
| 전열면적 | 1.45 (㎡) | 1.45 (㎡) | 0.68 (㎡) | 0.72 (㎡) |
| 발열판재질 | 갈바륨강판 | 갈바륨강판 (세라믹코팅) | 갈바륨강판 | 갈바륨강판 |

- 신속한 설치 · 다양한 용도**
- 일반주택
 - 아파트
 - 빌딩
 - 사무실
 - 호텔
 - 여관
 - 별장
 - 병원
 - 숙식실
 - 경비실
 - 고아원
 - 양로원
 - 강당
 - 시장
 - 점포
 - 체육관
 - 화원
 - 축사
 - 교회
 - 지하실
 - 현상사무실
 - 박물관등
 - 법당
- 특수주문제작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및 설치비 완전무료!”**
- 경제성**
 - 보일러가 필요없어 간편하고 경제적입니다.
 - 방바닥을 뜯지않아 시공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당일시공, 당일난방으로 인건비가 저렴합니다.
 - 절전형이며 열효율이 높습니다.
 - 편리성**
 - 전체난방 및 부분난방이 자유롭습니다.
 - 10분 이내에 바닥온도가 원하시는대로 유지됩니다.
 -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이동설치가 편리합니다.
 - 안전성**
 - 남녀노소 누구나도 설치 및 사용이 간편합니다.
 - 가스, 화재, 동파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 소음이 없어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이 유지됩니다.

| 경제성 | 편리성 | 안전성 | 무공해 |
|---|---|--|--------------------------|
| <p>방바닥을 뜯지 않고 조립식으로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방 1칸 1시간)</p> | <p>스위치 조작으로 원하는 부분만 난방을 하므로 절전형입니다.</p> | <p>전기에너지를 사용하므로 편리하고 동파나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p> | <p>소음이 없고 실내가 쾌적합니다.</p> |

전국대리점 모집중 ■카드소지자 12개월 정기분할

따끈이 온돌판넬사업부 : (주)윌 새
TEL:(02)792-8005, 792-9131 FAX:(02)796-4988